

## 일반논문

신은경 | 『삼국유사』 소재 ‘郁面婢念佛西昇’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김신정 |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맹문재 | 장정심의 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 고찰  
- 자아 인식과 민족의식 형성에 있어 -

윤인선 | 『저 무덤 위의 푸른 잔디』에 나타난 자서전적 텍스트성 연구

김복순 |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 해방 후~1950년대까지의 산문소설을 중심으로 -

김윤경 | 1950년대 미국문명의 인식과 교양여성 담론  
- 여성독자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

이 경 | 『토지』와 곽탈의 변검술

임정연 | 여성문학과 술/담배의 기호론

손지연 | 근대 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논의의 지형



# 『삼국유사』 소재 ‘郁面婢念佛西昇’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신은경\*\*

## 〈차례〉

1. 머리말
2. 『郁面婢念佛西昇』에 대한 개괄적 검토
3. ‘兩性性’(androgyny)의 구현으로서의 텍스트 읽기
4. 남성중심적 기술물(androcentered description)로서의 텍스트 읽기
  - 4.1. ‘옥면이야기’를 보는 세 가지 시선
  - 4.2. ‘옥면서승설화’의 서술전략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에 실려 있는 ‘郁面婢念佛西昇’이라는 텍스트를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읽은 결과물이다. 옥면 이야기는 『鄉傳』과 『僧傳』의 기록, 일연의 견해를 피력한 논평적 산문서술, 이 이야기에 대한 일연의 직접적 감상을 표현한 7언절구 형태의 讚,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향전』의 기록은 옥면의 몸이 진신, 즉 남성의 속성을 지니는 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서승했다는 점에, 그리고 『승전』의 기록은 옥면의 전생이 팔진의 무리에 속하는 한 남성 수행자였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글에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는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페미니즘적 관점 하에서 두 가지 다른 독법으로 접근하였는데 하나는 양성성 혹은 양성구유(androgyny)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독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를 남성편향적 시각에 의한 기술물로 보는 독법이다.

즉, 전자의 독법은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육면의 양성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향전』의 기록과 육면의 전생이 남성 수행자였다고 하는 『승전』의 기록에 기초하여 이 이야기를 육면이라는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 양성의 요소가 具有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기술로 읽는 것이다. 후자의 독법은 여성성불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육면 당대, 후대의 남성지식인들이 그 타협안으로서 ‘여성변신성불’과 ‘남성 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의 종교적 성취를 왜곡 내지 희석시킨 기술물로 이 이야기를 읽는 관점이다. 전자는 육면의 이야기를 당대 사회·문화·종교적 맥락을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만을 검토한 것이고, 후자는 텍스트 외적 맥락 및 배경과 연결하여 텍스트를 해석한 것이다.

핵심어: 삼국유사, 육면, 양성성, 남성편향적 기술물, 여성변신성불설

## 1. 머리말

『삼국유사』에는 지극한 신심을 지닌 육면이라는 여자종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육면이 『삼국유사』에 나타난 女性成佛者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것<sup>1)</sup> 그리고 그 행적이 문자기록화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이룬 성

1) 나머지 한 사람은 「월명사 도술가」조에 나오는 월명사의 죽은 누이동생이다. 亡妹를 제사지내는데 紙錢이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극락왕생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은경, 「『삼국유사』 소재 향가 및 배경설화에 나타난 ‘女性 疏外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5집, 2005.9; 『한국 고전시가 경계허물기』 (보고사, 2010). 필자는 이 논문에서 ‘육면비염불서승’ 이야기를 ‘주변화에 의한 여성소외’의 한 예로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취가 당대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왜곡·굴절된 흔적이 포착된다는 점 때문이다. 페미니즘 논의의 핵심에 ‘여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현상이나 담론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읽는다는 것은 남성에 의해 변두리로 밀려난 여성들 혹은 평가절하된 여성들의 행위를 다시 제 자리로 원위치시키는 것, 그리고 왜곡된 기술의 베일에 가려진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글은 『삼국유사』 제5권 「감통」 제7에 실려 있는 ‘郁面婢念佛西昇’—앞으로 ‘옥면이야기’로 약칭함—이라는 텍스트를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읽은 결과물이다. 이 글에서는 같은 이야기에 대하여 페미니즘적 시각의 틀 안에서 두 가지 다른 독법으로 접근하였는데 하나는 양성성 혹은 양성 구유(androgyny)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독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를 남성편향적 시각에 의한 기술물로 보는 독법이다. 전자는 옥면의 이야기를 당대 사회·문화·종교적 맥락을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만을 검토한 것이고, 후자는 텍스트 외적 맥락 및 배경과 연결하여 텍스트를 해석한 것이다.

## 2. 「郁面婢念佛西昇」에 대한 개괄적 검토

(a) 경덕왕대에 康州의 善士 수십 인이 뜻을 서방에 두고 고을의 경계에 彌陀寺를 창건하고 만 일을 계획하여 契會를 하였다. 그때 阿干인 貴珍의 집에 옥면이라 하는 한 여종이 있어 그 주인을 따라 절에 와서 中庭에 서서 스님을 따라 염불하였다. 주인은 그가 일을 잘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매번 곡식 2석을 주어 하루저녁에 쪼개 하였는데 그 여종은 초저녁에 다 쪼개 절에 와서 염불하여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뜰 좌우에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에 매고 합장하여 좌우로 흔들며 스스로 격려하였다. 그때 공중에서 ‘옥면낭은 堂에 들어가 염불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寺衆이 듣고 종에게 권하여

당에 들어가 例에 따라 정진하게 하였다. 얼마 안 되어 天樂이 서쪽에서 들려오더니 종이 솟아 대들보를 뚫고 나가 서쪽으로 가 교외에 이르러 육신을 버리고 眞身(佛身)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발하면서 천천히 사라지니 음악소리가 공중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당에 지금도 구멍이 뚫어진 곳이 있다(이상은 鄉傳).

(b)僧傳에 의하면 증 八珍이란 자는 관음의 現身이었는데, 무리를 결성하여 천 명이 되자 두 패로 나누어 각각 ‘勞力’ ‘精修’이라 하였다. ‘노력패’의 무리 중에 知事者가 戒를 얻지 못하여 축생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는데, 어느날 經을 신고 가다가 經力の 도움으로 아간 귀진의 집의 여종으로 태어나서 옥면이라고 이름하였다. 그가 일이 있어 하가산에 갔더니 꿈에 느낀 바 있어 드디어 道心을 발하였다. 아간의 집은 혜숙법사가 일으킨 미타사에서 멀지 않았다. 아간이 매양 그 절에 가서 염불할 때 여종도 따라가서 뜰에서 염불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기를 9년, 乙未 정월 21일에는 예불을 하다가 대들보를 헤치고 가 소백산에 이르러 신 한 짝을 떨어뜨렸으므로 그 땅에 菩提寺를 짓고 또 산 아래에 이르러 육신을 버렸으므로 그곳에 제2 보리사를 짓고 그 殿의 이름을 ‘窟面登天之殿’이라 하였다. 지붕에 뚫린 구멍이 십 여개나 되었는데, 폭우와 폭설이 내려도 젖지 않았다. 그후 호사가가 金塔 한 개를 본떠 만들어 그 구멍을 막고 그 위에 안치하여 이적을 기록하였다. 지금도 榜과 탑이 남아 있다. 옥면이 간 후에 귀진 또한 그 집이 異人이 머물러 산 곳이라 하여 집을 회사하여 절을 삼고 法王寺라 하고 田과 民을 바쳤다. 그 후 오래 지난 후에 폐하여 丘墟가 되었다. …(중략)…

(c)논하여 말한다. 鄉中 古傳에 의하면 옥면의 일은 景德王代의 사실이라 하고 徵(徵字는 아마 珍인 듯하다. 아래도 또한 같다) 本傳에 의하면 元和 3년 戊子 哀莊王 때의 일이라 하였으니 경덕 이후 惠恭·宣德·元聖·昭聖·哀莊 등 5대를 도합하면 60여년이다. 徵(珍)은 먼저요 面은

후니, 앞뒤가 鄉傳과 틀린다. 그러나 두 기사를 그대로 두어 의문을 闕케 한다.

(d)이에 讚한다. “서쪽 이웃 옛절에 佛燈이 밝았는데/ 방아찡고 돌아와 예불하면 밤은 二更이라네/ 스스로 염불하여 부처가 되고자/ 손바닥을 뚫어 끈을 꿰니 形體를 잊었도다”<sup>2)</sup>

위는 이 설화의 全文인데 각각 『鄉傳』과 『僧傳』의 기록에 의거하여 서술한 (a)와 (b), 일연의 견해를 피력한 논평적 산문서술(c), 이 이야기에 대한 일연의 직접적 감상을 표현한 7언절구 형태의 讚(d)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서 ‘향전’은 논평부에 “鄉中古傳”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 기록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예부터 구전되어 온 이야기라는 뜻

- 2) 景德王代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則今順安)善士數十人, 志求西方, 於州境創彌陀寺, 約萬日爲契. 時有阿干貴珍家一婢名郁面, 隨其主歸寺, 立中庭, 隨僧念佛, 主僧其不職, 每給穀二碩, 一夕舂之. 婢一更舂畢, 歸寺念佛. (俚言已事之忙, 大家之春促, 盖出乎此) 日夕微怠, 庭之左右, 豎立長樞, 以繩穿貫兩掌, 繫於樞上合掌, 左右遊之激勵焉. 時有天唱於空郁面娘入堂念佛, 寺衆聞之, 勸婢入堂, 隨倒精進. 未幾, 天樂從西來, 婢湧透屋樑而出, 西行至郊外, 捐骸變現眞身. 坐蓮臺, 放大光明 緩緩而逝, 樂聲不撤空中. 其堂至今有透穴處云. (已上鄉傳) 按僧傳, 棟梁八珍者觀音應現也. 結徒有一千, 分明(朋)爲二, 一勞力, 一精修, 彼勞力中知事者不獲戒, 墮畜生道, 爲浮石寺牛. 嘗馱經而行, 賴經力, 轉爲阿干貴珍家婢, 名郁面. 因事至下柯山, 感夢遂發道心. 阿干家距惠宿法師所創彌陀寺不遠, 阿干每至其寺念佛, 婢隨往, 在庭念佛云云. 如是九年, 歲在乙未正月二十一日, 禮佛撥屋梁而去, 至小伯山, 墮一隻履, 就其地爲菩提寺. 至山下棄其身, 卽其地爲二菩提寺, 榜其殿曰剔面登天之殿. 屋脊穴成十許圍, 雖暴雨密雪不霑濕. 後有好事者範金塔一座, 直其穴, 安承塵上, 以誌其異, 今榜塔尙存. 剔面去後, 貴珍亦以其家異人托生之地, 捨爲寺曰法王, 納田民, 久後廢爲丘墟. 有大師懷鏡, 與承宣劉頤·小卿李元長, 同願重營之. 鏡躬事土木, 始輪材, 夢老父遺麻葛屨各一. 又就古神杜(社), 諭以佛理, 斫出祠側材木, 凡五載告畢. 又加臧獲, 蔚爲東南名藍, 人以鏡爲貴珍後身. 議曰, 按鄉中古傳, 郁面乃景德王代事也. 據徵(徵字疑作珍. 下亦同)本傳, 則元和三年戊子, 哀莊王時也. 景德後歷惠恭·宣德·元聖·昭聖·哀莊等五代, 共六十餘年也. 徵先面後, 與鄉傳乖違, 然兩存之闕疑. 讚曰, 西隣古寺佛燈明, 春罷歸來夜二更. 自許一聲成一佛, 掌穿繩子直忘形.(삼국유사 권 제5 감통 제7 옥면비염 불서승)

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승전』에 對가 되는 대상이라 한다면 구전보다는 옛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며, 이 글도 옛 문헌으로 보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승전』은 金大問의 『高僧傳』도 아니고 覺訓의 『海東高僧傳』도 아닌 별도의 책인 듯하다. 위 기록에 의하면 옥면은 경덕왕(재위 742년-765년) 때 혹은 元和三年(808년) 애장왕 때의 일이므로, 7세기말에서 8세기초에 활약한 김대문의 『고승전』<sup>3)</sup>에 옥면의 일이 기록될 수가 없으며, 각훈의 『해동고승전』에는 八珍이나 貴珍에 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sup>4)</sup>

『향전』에 의하면 위 이야기는 ‘옥면이라는 女從이 진심을 다하여 염불한 결과 진신으로 변하여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여기서 옥면이 서쪽으로 갔다는 것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과 成佛을 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승전』에 의하면 전생에 부처의 제자였던 사람이 소로 태어났다가 다시 다음 생에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옥면이었고 정성으로 염불하여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축약된다. 『향전』에서는 옥면의 夙生의 신심과 행적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신심의 결과로 몸이 진신으로 변했다는 것 즉 ‘變現眞身’이 강조되어 있다. 반면, 『승전』에서는 ‘전생’의 일에 더 큰 비중이 두어져 있다. 논평부(c)에서는 향전과 승전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옥면’이라는 여자의 신이한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 성격을 띠는 텍스트라 볼 수 있다.

### 3. ‘兩性性’(androgyny)의 구현으로서의 텍스트 읽기

옥면이 서술한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독법은, 옥면의 신앙생활에서 보

3) 신문왕 원년(681)에서 7년(687) 사이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해동고승전』은 현재 1'2권만 전하는데 ‘팔진’이나 ‘귀진’의 전기가 여타 다른 부분에 실려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양성성의 측면--(a)에 의거--이나 전생이 부처의 제자로서 남성 정신이 금생의 육면의 몸에 깃들여 있다는 점--(b)에 의거--에서, 이 이야기를 육면이라는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 양성성의 요소가 具有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기술로 읽는 것이다. 이 독법에서 종교·문화·사회 등 텍스트 외적 요소는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만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양성성의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것을 개괄해 보도록 하자.

‘양성성’이라는 말은 남성을 일컫는 그리스어 ‘Andros’와 여성을 일컫는 ‘Gyne’의 합성어로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적 性徵과 여성적 性徵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생리적 양성성’(physiological androgyny)<sup>5)</sup>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의학분야의 관심 대상이 된다.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관심을 갖는 양성성 이론은 크게 어떤 한 개인이 원래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과 반대되는 성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 즉, 성역할(gender)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행동적 양성성’(behavioral androgyny), 그리고 한 개인의 성정체성과 같은 정신·심리영역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으로 구분된다.<sup>6)</sup> 이 글에서는 이 중 심리적 관점에서의 양성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육면이야기를 읽고자 한다.

헤일브룬은 ‘여자·남자’라고 하는 양극화의 감옥에서 벗어나 한 개인의 성역할이라든가 행동패턴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을 이상적인 세계로 보고 이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양성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그녀는 양성성을, 여성 안의 남성적 요소, 남성 안의 여성적 요소의 구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두 요소가 한 개인에게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인간상이 구현된다고 생각하고 문학작품 속에서 그 모델을 탐구하였다.<sup>7)</sup> 헤일브룬은 심리적 양성성이란 말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

5) 예컨대 양성구유(intersex) 및 자웅동체(hermaphrodite)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6) Mary Vetterling-Braggin(ed.), *Femin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2), Part IV "Androgyny" Introduction.

7) Carolyn G. Heilbrun,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New York: Alfred A. Knopf, 1964/1973), introduction iv, v.

만, 1960년대에 이미 심리적 양성성의 개념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명백히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다.

심리적 양성성에 관한 이론은 산드라 벰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산드라 벰은 남자 561명, 여자 356명을 대상으로 성 역할에 관한 것을 조사하여 數值化<sup>8)</sup>하고 이를 토대로 심리적 양성성의 이론을 구축했다. 그녀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양극단에 존재하는 二分的 개념으로 보지 않고 한 개인 내에 공존할 수 있는 특징으로 보았다. 다만 개인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보고, 한 개인에게서 보여지는 성정체성의 양상을, 남성적(masculine), 여성적(feminine), 양성적(androgyneous), 미분화적(undifferentiated)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모두 높은 정도로 나타나고, 남성적인 사람은 여성적 특성보다 남성적 특성이, 여성적인 사람은 남성적 특성이 여성적 특성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며, 미분화적인 사람은 성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류이다. 그녀에 의하면, 양성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성적, 남성적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였다.<sup>9)</sup> 즉 남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바람직한 특성들을 함께 지닌 것을 심리적 양성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 양성성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은 사회적 역할 혹은 심리적 특징들에 의한 성구분의 개념인 ‘gender’를 생물학적인 성구분 개념인 ‘sex’와 구분하고 남자나 여자나 하는 성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양성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남성적’(masculine) ‘여성적’(feminine) 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언술에서 이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말은,

8) Bem은 이를 ‘Bem Sex-Role Inventory (BSRI)’라 명명하였다. Sandra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974. pp.155 - 162.

9) Sandra Bem, “...androgynous men and women are more flexible and more mentally healthy than either masculine or feminine individuals; undifferentiated individuals are less competent.”(ibid., p.162).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혹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자연스러운 혹은 더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남성이나 여성의 특성 혹은 남성이나 여성에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때로는 ‘전통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부여되어 온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sup>10)</sup> 어떤 특성을 ‘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각 사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두 부류의 심리적 특징들의 상당수 혹은 모두를 가진 경우를 각각 ‘남성적’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Group A: 강한 의지, 야망, 용기, 독립성, 단호함, 공격성, 대담성(뽀뽀함), 논리적·추상적·분석적 사고능력, 감정통제능력

Group B: 부드러움, 조심성·수줍음·얌전함, 겸손, 부양·원조·후원·시중, 감정이입, 자비심·동정심, 다정함, 양육, 직관성, 감수성, 비이기적 태도<sup>11)</sup>

여기서 ‘Group A’는 남성적인 특성, ‘Group B’는 여성적 특성을 나타낸다. 단 양성성 이론가들은 생물학적으로 남자 혹은 여자라 하더라도 남성적이거나 여성적 혹은 양자 모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sup>12)</sup>

그러면, 이같은 심리적 양성성 이론에 토대를 두고 옥면이야기가 보여

10) Mary Vetterling-Braggin(ed.), op.cit., Part IV "Androgyny" Introduction, p.152.

11) Mary Vetterling-Braggin(ed.), ibid., Part I, Introduction, pp. 5-6. 산드라 벰의 경우는 남성적·여성적·중성적인 특성을 각각 20항목씩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Aggressive/Ambitious/Analytical/Assertive/ Competitive 등을 남성성의 척도로, Affectionate/Cheerful/Childlike/Compassionate 등을 여성성의 척도로, 그리고 Adaptable/Conceited/Conscientious/Conventional/Friendly/Happy/Helpful 등을 중성성의 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Sandra Bem, op.cit., p.156.

12) 양성성 이론가들이 생물학적 여자·남자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성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축한 개념이므로 남·녀 이분법적 분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같은 딜렘마는 비단 이들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이론 전체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다.

주는 양성성의 면모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향전』의 내용부터 검토해보자. 『향전』 인용 부분에는 信心과 관련된 옥면의 평소 행동과 태도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여종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면에게서는 좋은 물론 일반 여성에게서도 보기 힘든 강한 의지와 종교적 신념, 마음먹은 것을 성취하려는 굳은 결단력 등을 엿볼 수 있다. 여종의 신분이니 주인이 명하는 것은 책임을 다해 완수하지만, 그녀의 정신과 관심은 온통 염불에 쏠려 있다. 일은 소홀히 하고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염불하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으니 주인이 이를 곱게 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위 인용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일연이 이같은 옥면의 태도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있는 속담 ‘내 일 바빠 한택 방아 서두른다’는 이런 상황을 압축한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내 일’은 옥면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 즉 염불하는 일이고, ‘한택--큰택-- 방아’는 ‘여자’인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 방아찧는 일은 종 중에서도 여자인 종이 해야 하는 본 임무인 반면,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염불을 하는 행위는 종, 그것도 여자인 종의 처지에는 걸맞지 않은 행위인 것이다. 이 점은 옥면이 굳은 의지와 종교적 신념, 결단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점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행위 중에는 일반 남성들도 하기 어려운 苦行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즉,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에 매고 합장하여 좌우로 흔드는 것과 같은 행동은 보통의 의지와 신심, 결단력 가지고는 행하기 어려운 경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옥면의 시대는 물론 지금 시대에도 여성의 전형적 이미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같은 苦行을 통해 드러나는 옥면의 성격은, 앞서 언급한 심리적 특징들에서 ‘남성적’인 것으로 규정된 강한 의지, 야망, 용기, 독립성, 단호함, 공격성, 대담성(뚝뚝함), 감정통제능력 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기록을 통해서서는 위에 제시한 여성적 특성이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단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그가 시킨 일--2석이나 되는 분

량의 방아찝기--을 부지런히 해내는 순종성과 부지런함 정도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엄격한 사회에서 살았던 여종의 일반적 삶의 양상을 생각할 때 부드러움, 조심성, 순종, 부양, 시중 등 여성적 특성의 제반 요소들이 기반이 되었을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이 문면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여종이 갖춰야 할 또는 여종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태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여종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점만을 문면에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이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옥면은 젠더상으로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을 모두 갖춘 兩性的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13)</sup> 양성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성적, 남성적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한 산드라 뱀의 견해에 입각해 볼 때, 옥면에게서 보이는 이같은 양성적 특성은 ‘성불’이라는 종교적 성취를 이루기에 이상적인 정신세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옥면이 진신--부처의 몸--으로 변하여 서방으로 갔다는 『향전』의 결말은 옥면에게 갖든 양성성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話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眞身’이란 남녀 성별을 떠난 중성적 개념 혹은 남녀 속성이 모두 함유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승전』 인용 부분 (b)를 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옥면의 양성적 속성이 『향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옥면의 전생은 ‘소’이고 그 전 전생은 부처의 현신<sup>14)</sup>인 ‘팔진’의 무리 중 한 사람이었다. 일연이 인용하고 있는 『승전』이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고승들의 전기나 일화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승전』 기록의 주인공은 ‘팔진’의 무리에 속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팔진 무리에 속한 수행자→소→옥면’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고리 속의 ‘옥면’이란

13) 페미니즘 이론에서 ‘性’은 생물학적 개념의 ‘sex’와 사회적 역할이나 이미지를 가리키는 ‘gender’로 구분된다. 전자로서는 ‘남자’ ‘여자’, 후자로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14) 뒤에서 언급할 三佛身--법신·보신·응신-- 중 응신을 가리킨다.

존재는 금생에서 ‘여자’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 몸에는 ‘남성’ 수행자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옥면에게는 남성 아이덴티티의 속성과 여성 아이덴티티의 속성이 공존해 있는 셈이다. 표면적 서술내용은 『향전』의 기록과 다르지만, 옥면이라는 개인이 지닌 양성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양성적 속성은 佛覺을 이루기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며 옥면은 생물학적으로 여자냐 남자냐를 떠나 완전한 인격을 지닌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4. 남성중심적 기술물(androcentered description)로서의 텍스트 읽기

##### 4.1. ‘옥면이야기’를 보는 세 가지 시선

‘옥면이야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독법은, 이를 남성중심적 시각이 각인된 기술물로 읽는 것이다. 이 텍스트는 한 여종이 성불하여 서방정토에 간 사건을 기술한 것인데, 이 기록에는 同 사건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혹은 입장이 개입되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일연은 전해져 오는 『향전』 『승전』 기록에 의거하여 옥면이야기를 서술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느낌을 議論文과 讚詩로써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옥면이 성불한 사건에 대한 기술에는 『향전』과 『승전』 작자의 시선,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옥면비염불서승’이라는 제목으로 담론화한 一然의 시선이 혼재되어 있다.

먼저 『향전』 작자의 시선이 본 서술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자. 앞의 인용에서 (a) 부분을 보면 성불하기 전 ‘해골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했다’(捐骸骨變現眞身)는 구절이 있다. 이 중 ‘捐骸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해골’이란 자구적으로는 시신의 ‘뼈’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뼈를 포함한 ‘육신’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주인은 육면이라는 여자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육면이 여성인 몸을 버리고 진신으로 변하여 서방정토로 갔다’는 의미가 된다.

그 다음 ‘變現眞身’이라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통적 三佛身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삼불신이란 佛身을 3종으로 구분한 것인데 法身, 報身, 應身이 그것이다. ‘법신’이란 佛法 즉 부처의 가르침을 신체에 비유한 것으로 어떤 형체를 가진 몸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킨다. ‘보신’이란 아미타불·약사불과 같이 무한한 願의 수행으로써 萬德을 원만하게 성취한 부처를 가리키며, ‘응신’<sup>15)</sup>이란 부처가 중생을 교화 구제하기 위해 신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타낸 임시적 모습의 중생을 말하는데 化身이라는 말로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眞身’이란 삼불신 중 법신과 보신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서 진리 자체와 진리의 작용을 신체로 삼으면서 응신으로 출현하는 원래의 부처를 가리킨다.<sup>16)</sup>

이처럼 ‘진신’이란 실제적인 인간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또는 法에 대한 일종의 관념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존재인 부처가 남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佛身’의 개념에는 남성적 속성이 각인되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육면이 ‘變現眞身’했다는 구절이 그녀의 몸이 ‘남자의 육신으로 변하여 서승했다’는 내용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현세의 여자의 몸 그대로 서승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것은 『향전』의 작자가 여성의 종교적 성취에 대해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 점은 남성의 서승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 ‘廣德 嚴莊’조나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조와 비교해 보면 좀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15) 즉, 응신이란 임시적인 모습으로 출현한 부처를 말한다.

16) 경인문화사 편, 『불교용어사전』, 1998. 1579쪽.

17) 이들의 서승사실은 일연이 그 이전의 다른 기록들--예컨대 『白月山兩聖成道記』--에 근거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향전』 작자의 시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향전』과 同時代의 서술인 만큼 남녀 서승사실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는

문무왕 대에 사문 광덕과 엄장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친하여 밤낮으로 약속하되 먼저 安養으로 돌아가는 자는 모름지기 서로 알리자고 하였다. …(中略)… 어느날 해 그림자는 붉은 빛을 띠면서 소나무 그늘 속으로 고요히 저물었는데, 창밖에 소리가 나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구름 밖에서 天樂 소리가 나고 광명이 땅에 뻗어 있었다. 그 다음날 엄장이 광덕의 집을 방문해 보니 과연 광덕은 죽어 있었다. …(下略)…18)

…그러자 얼마 후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색으로 변하였다. 부득이 몹시 놀라니, 남자가 말하였다. “스님께서도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노힐부득이 마지못해 그의 말에 따르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옆에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中略)… 박박이 가서 보았더니 노힐은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下略)…19)

첫 번째 인용은 광덕이라는 수행자의 西昇 장면을, 두 번째 인용은 노힐부득이 성불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구름이나 天樂, 향기, 광명 등은 서승 장면의 공통요소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광덕이나 노힐부득의 몸이 진신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광덕이나 노힐부득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굳이 진신으로 변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로 볼 때, 옥면의 경우 ‘변현진신’의 화소가 삽입된 것은 그녀가 금생에 여자의 형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불하기 위해서는 이를 벗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변현진신’이라는 구절은 옥면의 정신세계의 殊勝함을 표명하기 위한 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18) 『삼국유사』 권제5 『감통』 ‘광덕 엄장’조. 이하 지면관계상 원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19) 『삼국유사』 권제3 『탑상』 ‘南白月二聖 努勝夫得 恒恒朴朴’ 조.



소가 아니라, 성불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여성의 열등성을 전제하고 그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삼입한 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서승한 뒤의 옥면에 대한 서술내용에서 알 수 있다. 뒤에 볼 『승전』의 경우와는 달리 異蹟이 일어난 곳에 절이나 탑 등 어떤 기념비적인 징표도 세웠다는 내용이 없고 또 옥면에 대한 후대인의 숭앙의 태도도 나타나 있지 않다. 『승전』의 경우는 서승을 한 주체를 옥면이라고 하는 여종이 아닌, 그녀의 전생인 남자 수행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이나 탑을 세워 숭앙을 하는 내용이 거부감없이 기술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향진』의 작자는 서승의 주체를 옥면이라고 하는 여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속성’을 거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현진신’의 화소를 도입했고 따라서 절이나 탑을 세워 그 행적을 기렸다는 내용을 부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부처님 몸으로 변했다는 것이 정신세계의 업그레이드를 내포한다고 볼 때, 『향진』에서 말하는 변현진신은 옥면의 정신적·종교적 우월성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불에 있어서의 여성의 열등성을 말하기 위한 우회적 서술장치가 아니었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성불에 대한 이런 입장은 단지 『향진』 작자만의 생각이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2절에서 하도록 하고 옥면이야기에 대한 두 번째 시선에 대해 알아 보자. 텍스트 인용 중 『승전』에 의거한 기록 (b) 역시 옥면의 서승사건을 보고 기술하는 관점에 여성성불에 대한 작자의 회의적 시각이 깃들여 있다. 여기서 옥면의 前生은 ‘소’이고 前前生은 부처의 현신인 팔진의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 수행자는 戒를 얻지 못해 다음 생에서 축생으로 떨어졌지만 불경을 읽고 가다가 그 도력에 힘입어 다시 이승에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수행에 정진한 그 수행자는 드디어 성불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옥면은 몸은 여자지만 전전생에서 팔진의 지도하에 정진하던 그 수행자의 영혼을 가진 존재다. 즉, 『승전』의 작자는 옥면이라는 여종이 성불하여 서방정토에 간 사건을 두고, 성불한 주체의 전생이 팔진의 지도하에 수행정진

하던 사람들 중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여자가 아닌 남자가 서방정도에 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염불서승한 사람, 다시 말해 『승전』에 기록된 옥면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임시로 여자몸으로 태어난 부처의 제자인 것이다. 이것이 『승전』 작자가 옥면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비록 『향전』 작자의 경우처럼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여성성 해체까지는 아닐지라도, 옥면의 전생을 남자로 설정함으로써 ‘여성성불’ 사건이 가지는 문화적·종교적 함의를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옥면의 서승 뒤에 그 異蹟이 일어난 곳과 관련하여 제1, 제2 보리사와 법왕사 등 세 개의 사찰이 지어지고 금탑이 세워졌으며 이 성스러운 사건을 기리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도, 『승전』 작자가 서승한 존재를 일반적인 여자가 아닌, 임시적으로 여자몸을 취한 ‘남자’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 즉, 후대인이 숭앙하는 것은 옥면이라는 여자종이 아니라, 금생에 일시적으로 여자의 몸을 하고 있는 ‘남자 수행자’인 것이다. 『향전』 작자의 관점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경우도 여성의 성취를 부정 또는 폄하하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세 번째 시선은 『향전』과 『승전』 두 기록에 의거하여 ‘옥면이야기’를 재구성한 一然의 시각이다. 그는 의론문에서 ‘두 기록의 내용이 시대적으로 相違가 있지만 두 기사를 모두 신는다고 하여 그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중립적·객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옥면서승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맨 끝에 붙은 讚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찬을 다시 한 번 인용해 보도록 한다.

서쪽 이웃 옛절에 佛燈이 밝았는데	西隣古寺佛燈明
방아짚고 돌아와 예불하면 밤은 二更이라네	春罷歸來夜二更
스스로 일심으로 염불하여 부처되길 기약하며	自許一聲成一佛
손바닥을 뚫어 끈을 꿰니 形體를 잊었도다	掌穿繩子直忘形

이 찬시 내용은 대부분 『향전』 『승전』 두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옥면이 서승하는 장면을 ‘형체를 잊었도다(“忘形”)라고 표현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자구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자건 남자건, 귀한 사람이건 천한 사람이건 죽는다는 것 자체가 형체 즉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므로 단순히 옥면의 죽음을 중립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結句전체를 볼 때 ‘형체를 잊게 된’ 경지는 ‘손바닥을 뚫어 끈을 꿰는’ 행위에서 기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일연이 말하고자 하는 ‘忘形’이란 고행과도 같은 정진이 ‘因’이 되어 얻어진 ‘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果’는 어떤 원인에 대한 단순한 ‘결과’가 아닌 높은 정신적 경지라는 속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구의 전반과 후반을 이처럼 因果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사 ‘直’이다. 이는 ‘곧’ ‘다만’ 등의 의미를 갖는 부사이므로 ‘망형’을 단순히 ‘죽는 것’으로 이해하면 결구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망형’은 뭔가 꾸준한 정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성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타동사+목적어’의 구조로 되어 있는 ‘망형’이라는 표현이다. 만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체가 다하다’는 의미의 ‘形忘’ 즉 ‘주어+서술어’의 구조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연은 옥면의 성불 사건을 ‘망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西昇’이라 해도 될 것을 왜 ‘忘形’이라 표현했을까? 그것은 옥면이 여자의 형체, 그것도 천한 ‘종’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성불한 것을 ‘형체를 잊었다’고 표현했다고 본다. 비록 『향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변신남성성불의 시각이 직접적·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 입각해 있는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옥면의 서승을 보는 일연의 시선은 『향전』이나 『승전』 작자처럼 여성차별적이거나 남성편향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술의 행간에

서 여성성불에 대한 종래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우리는 옥면의 이야기를 보는 세 가지 시선을 통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종교적 성취에 대해 당대 남성 지식인들의 남성중심적인 혹은 여성차별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다.

#### 4.2. '옥면서승설화'의 서술전략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옥면이 지성 염불하여 서승했다고 하는 '사건'과 그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런 사건과 시각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문자기록으로 남기는 '기술' 행위는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옥면이야기는 여러 겹의 베일을 쓰고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옥면염불서승' 사건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물론, 일연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전한 『향전』 『승전』 작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사건이 옥면 당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구전·유포되다가 『향전』 『승전』으로 成文化되었으며, 일연이 이 기록들을 토대로 자기 견해를 덧붙여 '옥면비염불서승'이라는 제목을 붙여 『삼국유사』에 수록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옥면의 사건을 보는 시각은 佛者と 非佛者, 남자와 여자, 당대인과 현대인, 식자층 불자와 서민층 불자, 승려와 在家 신자 등 여러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옥면이야기는 이 중 승려를 포함하여 불교 조직에 관여하고 있거나 불교에 관심이 많은 '식자층 남성'의 시각에 의해 수용·여과된 것이다. 다시 말해 옥면이야기는 이들이 여성불자들의 종교적 성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따라 왜곡·굴절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옥면이 살았던 신라시대나 『삼국유사』가 쓰여진 고려시대가 비록 조선시대와 같은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남성중심의 사회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

는 것은, 문자라는 매체를 남성이 독점하고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문자기  
록화하는 일을 남성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자’가 지니는 힘  
을 오직 남자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에게 의해 기록된 ‘여성’ 관련 자료들에 접근함에  
있어 매우 주의깊은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현상’이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정치  
적·종교적·사회문화적 의도가 개입되어 그것이 감추어지거나 폄하될 수  
도 있고, 그 현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무화되어 버릴 수도 있으  
며, ‘문자’라는 권위있는 매체로 성문화되지 못한 채 ‘말’로 구전되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또 문자로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남성들에 의  
해 왜곡되었을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왜곡 양상은, 행위주체인 여성  
이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해당 사건이 남성의 힘과 권위를 위협하는 것  
이거나 남성중심의 가치에 반하는 것일 때 훨씬 더 정도가 커질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조명한다고 하는  
것은, ‘옥면의 서승’이라고 하는 ‘사건’과 이를 보는 ‘시각’, 그리고 이것을  
문자기록화하는 ‘기술’ 과정에 개입되었을 수도 있는 남성에게 의한 왜곡과  
굴절을 간파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성불이라는 종교적 성취를 이  
룬 ‘행위의 주체’와 ‘담론의 주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옥면의 이야기  
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일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성불여부’에 대한 불교의 전통적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이 성불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전통  
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왔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여성이 성불할 수 없다  
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석가모니 붓다 재세시에는 깨달음에  
있어 남녀가 동등함을 인정하여 똑같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부처 사후 수 세기가 경과하면서 여러 부파로 나뉘는 이  
른바 소승불교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남자는 성불하지만 여성은 불가하다  
는 설이 우세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성이 성불하려면 남성의 몸으로 바  
뀌어야 한다는, 이른바 ‘여성변신성불설’이 제기되었다.<sup>20)</sup> 그러다가 2-4세기

무렵 대승경전이 형성되는 시기에 여성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여성즉신성불설’이 대두하여 양성 똑같이 성불한다는 평등사상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여성 성불에 대한 대승불교의 입장은 초기불교에의 복귀라 할 수 있다.<sup>21)</sup> 그러나 대승불교가 모든 사람이 佛性을 지니므로 모두 성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당시 인도사회는 남존여비사상이 지배적이었고 불교교단의 조직, 운영이 모두 비구승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법화경』과 같은 대표적 대승경전에서조차도 여성 성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변신 남자성불설은 불교 교단이 당시 인도사회의 가치관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일종의 타협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대 어느 종교이건 새로운 종교가 유입될 때는, 단지 그 종교의 가르침과 경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있게 한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유입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신리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불교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높고 여성의 종교활동이 활발했던 나라였고 또 경전 중에서도 여성성불의 증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勝鬘經』이 진흥왕대에 이미 들어왔음<sup>22)</sup>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인도사회의 전통적 시각 그리고 그 사회에서 발생 성장한 불교의 전통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사회에서 위대한 종교적 성취를 이룬 여성을 보는 시각이 형성됨에 있어, 여성의 성취에 대한 붓다의 견해, 인도 전통사회의 여성차별적 시각, 붓다 사후 그 가르침을 경전으로 結集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비구승들의 관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말할

20) 이영자, 『불교와 여성』(민족사, 2001), 240-241쪽. 그러나 대승불교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여성변신성불설의 등장 시기 또한 달리 이해될 수 있다. 대승불교 성립을 기원 전후경까지 소급한다면 이 개념은 대승시대 초기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구자상, 『여성성불의 이해』(불교시대사, 2010), 183-188쪽.

21) 이영자, 앞의 책, 142-150쪽. 198-199쪽.

22) 『삼국사기』 제4권 『신라본기』4에 의하면 승만경이 진흥왕 37년에 유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해에) 안홍법사가 隋나라에 들어가 胡僧 毗摩羅 등 두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과 승만경, 불사리를 바쳤다. “安弘法師入隋求法, 與胡僧毗摩羅等二僧廻, 上稜伽勝鬘經及佛舍利.”

나위가 없다.

이것은 ‘옥면서승’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다. 신라때는 정토 신앙이 성행했는데 미타<sup>23)</sup>신앙과 미륵신앙은 정토신앙의 두 축을 이룬다. 옥면이야기에는 ‘미타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 이야기가 미타신앙을 토대로 형성되었음을 말해 주는 한 단서가 된다. 『아미타경』에는 아미타불이 비구 ‘법장’으로 살던 때 세운 서원 48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그 중 35번째 서원은 ‘시방세계의 어떤 여인이든지 내 이름을 듣고 기뻐하여 보리심을 내는 이가 만약 여인의 몸을 싫어하면 죽은 후에는 다시는 여인의 몸으로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남성만 극락정토에 간다는 미타신앙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향진』이나 『승진』 또는 『삼국유사』 등으로 성문화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인 옥면이 西昇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일종의 딜렘마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옥면의 옥신이 남자로 변신했거나 그 전생을 남자로 설정한 것은 이러한 딜렘마 해결을 위한 신라 고려 지식인들의 해결책이었던 셈이다. 극락에 간 존재는 결국 남자라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옥면이야기의 실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성불이라는 위대한 성취를 얻은 주체(subject)는 ‘옥면’이라는, 종의 신분을 가진 여자이고, 둘째 원인결과론의 관점에서 성불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동인은 옥면의 신심 즉, 내면적 고귀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적 속성이 각인된 진신으로 변하여 서승했다고 기술하거나, 전생을 남자 수행자로 설정함으로써 옥면이 이룬 종교적 성취의 가치와 의미, 신심, 내면적 고귀함을 폄하·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는 여성성불이 불가하다는 그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깨달음—혹은 성불—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과 여성 존재의 잠재능력—혹은 옥면의 내면적 고귀함— 사이에 어떤 존재 혹은 어떤 목소리가 끼어들어 여성의 정신영역을 축소시키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며,

23) ‘아미타’라고도 한다.

결국은 여성성의 해체를 유도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목소리는 옥면이 여성 또는 여성성을 버리고 남성의 속성을 지니게 되면 그녀가 지닌 내면적 고귀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던 것이다. 여성즉신성불설이, 당대 인도사회 그리고 이와 타협하려는 초기 불교교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듯, 옥면이야기는 초기 불교교단의 남성비구들의 시각을 수용한 옥면 당대 혹은 후대 남성 지식인층의 타협적 기록이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거래를 하려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여기서 전통 사회 적어도 『삼국유사』가 쓰여진 고려시대까지 몇몇 향가의 작자를 제외하면 여성은 발화의 주체인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 인용문은 옥면이 자신의 신비체험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 제3자인 일연이 전해져 오는 古 기록들에 의거해 옥면의 성불장면을 기록한 글인 것이다. 즉, 옥면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경험을 담론의 소재 내지 대상으로 하여 남성이 발화의 주체가 되어 기술한 담론인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글을 통해 남성의 여성 지배, 여성의 종속화를 피하고자 했던 옥면 당대 혹은 후대 남성 지식인층의 목소리를 감지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옥면이야기는 남성이 남성 헤게모니의 유지를 위해 여성 및 여성의 경험을 활용한 예로 이해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 글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郁面婢念佛西昇’이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은 결과물이다. 하나는 양성성 혹은 양성구유(androgyny)의 관점에서 읽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를 남성편향적 시각에 의한 기술물로 읽은 것이다. 전자의 독법은, 『향전』을 통해 드러나는 옥면의 양성적 특성과 『승전』에 기록된, 남성 수행자로서의 옥면의 전생에 근거를 두고 이 이야기를 옥면이라는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 양성의



요소가 具有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기술로 읽는 것이다.

후자의 독법은 여성성불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육면 당대, 후대의 남성 지식인들이 그 타협안으로서 ‘여성변신성불’과 ‘남성 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의 종교적 성취를 왜곡 내지 희석시킨 기술물로 이 이야기를 읽는 관점이다. 전자의 관점은 종교'시대적 맥락을 떠나 텍스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읽어낸 것이고, 후자의 관점은 텍스트 외적 맥락과 연결지어 텍스트를 읽어낸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一然, 『三國遺事』, (CD-ROM) 삼국유사(이병도 편, 누리미디어, 두계학술재단, 1999)

경인문화사 編, 『불교용어사전』, 1998.

### 2. 논저

구자상, 『여성성불의 이해』, 불교시대사, 2010. 183-188쪽.

이영자, 『불교와 여성』, 민족사, 2001. 240-241쪽.

Heilbrun. Carolyn G,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1973), introduction iv, v.

Vetterling-Braggin. Mary(ed.), *Femininity, Masculinity, and Androgyny* (Totowa, N.J.: Rowman and Littlefield, 1982), Part IV "Androgyny" introduction.

신은경, 『삼국유사』 소재 향가 및 배경설화에 나타난 ‘女性 疏外の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5집, 2005.9, 53-82쪽.

Bem. Sandra,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974. pp.155 - 162.

## Abstract

### A Feminist Reading of Ukmyŏn Story in the *Samguk Yusa*

Eun-kyung, Shin

In the *Samguk yusa* or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written by a Koryŏ Buddhist monk Ilyŏn(1206-1289) in 1281, there is a story on a girl servant, Ukmyŏn. The story entitled "Ukmyŏn, the Girl Servant who Entered the Lotus Paradise" describes the process that the girl, a devout and committed Buddhist worshipper, attained a religious awakening thereby entering the Lotus Paradise. "Entering the Lotus Paradise," here refers both to having died and to having become a Buddha.

The "Ukmyŏn story" is composed of 4 parts: (a) the citation of the *Hyangjŏn* or "Local records," the first version of this story (b) the citation of the *Sŭngjŏn* or "Tales of Monks," another version of the story (c) Ilyŏn's remarks on the two records, and (d) a hepta-syllabic quatrain composed by Ilyŏn to praise Ukmyŏn's religious achievements.

According to the *Hyangjŏn* (a), Ukmyŏn's story is summarized as follows: a girl servant Ukmyŏn prayed to Amitabha(Amita Buddha) devoutly with wholehearted faith for a long time, thereby being transformed into Buddha's body and entering the Lotus Paradise. Similarly the records of the *Sŭngjŏn* (b) can be condensed as follows: a man who had practiced under the lead of P'aljin, an incarnation of Buddha, was reborn as a cow due to his violating

the Buddhist commandments and after the cow had died it was reborn as a human being--a female--by virtue of the power of the Buddhist *sutras* which the cow had carried on its back, and the girl entered the Lotus Paradise.

Comparing the two versions of the "Ukmyōn story," the *Hyangjōn* and the *Sūngjōn*, this article intends to read the story from two viewpoints, both of which are based on feminist perspective: one is to consider this story as a description of the embodiment of androgynous attribute inherent in the girl Ukmyōn, and the other is to read it as a male-oriented narrative written with a discriminatory viewpoint against woman's religious achievement. The former is to read the story as a literary text excluding socio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of the time and the latter is to read it relating to the contexts.

Key words : Samguk Yusa, Ukmyōn, androgyny, male-oriented narrative, transformation of female's body into Buddha's body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